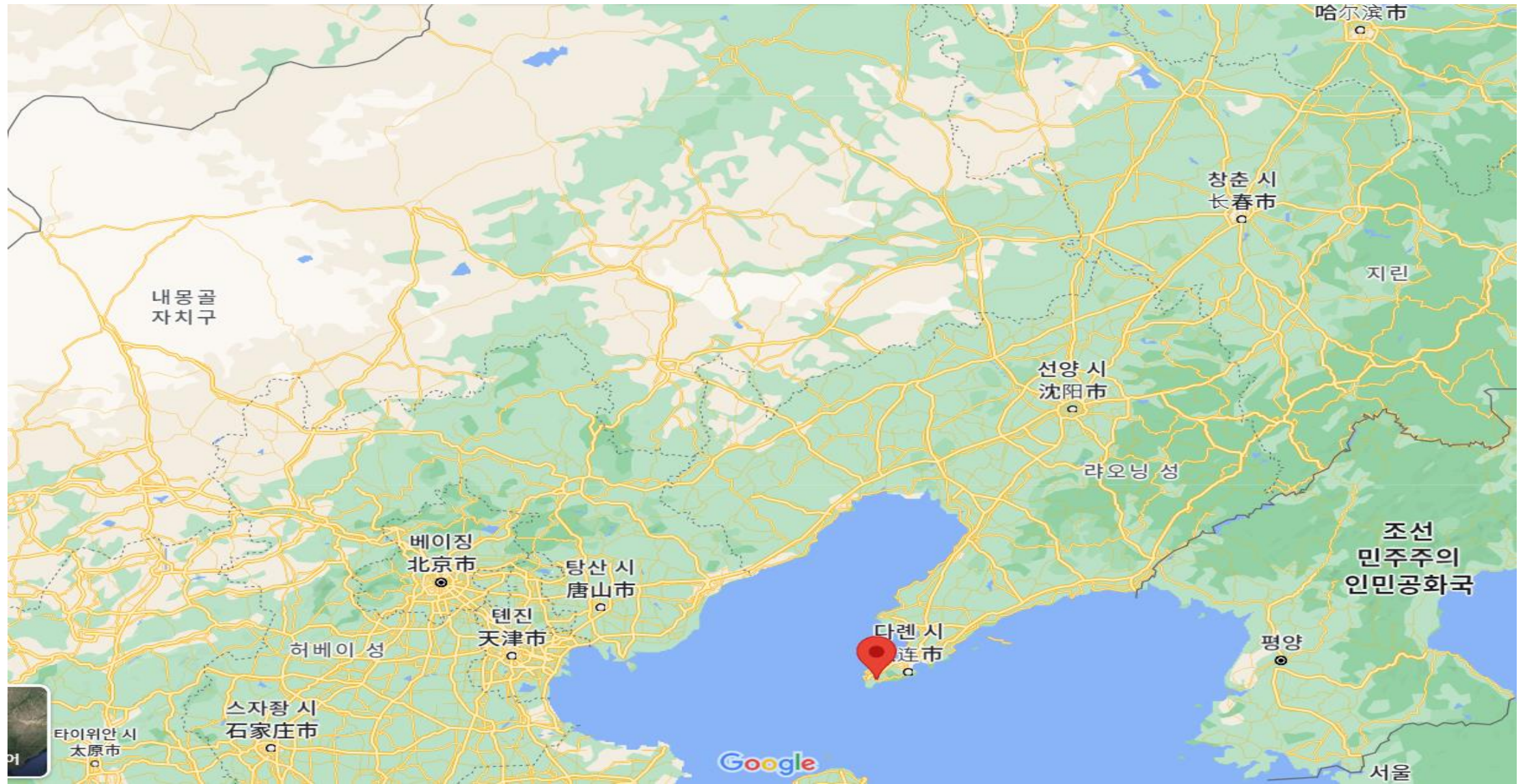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한국근현대역사기행



# 현재 다렌시(과거 뤼순, 포트 아서)



# 뤼순 감옥/안중근과 모친 조마리아 여사





#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반장 문제

-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소나무관에 안치돼 뤼순(旅順)감옥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중국 현지 신문 기사
- 순국(1910.3.26)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 만주신문 성경시보(盛京時報) 보도. 안 의사의 둘째 동생 안정근이 안 의사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본 당국 거부.
- 일본: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답변.
- 뤼순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됐을 것이라고 추정

#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반장 문제

- 안의사와 친분이 있는 감옥 관리자의 장례 절차 협조
- "고심 끝에 파격적으로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우도록 하고, 영구(靈柩)를 감옥 내의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3명의 죄수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하게 하여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
- 중국 상하이 발행 민국일보(民國日報) 1927년 7월 19일 자 기사: 일본이 안의사의 유해를 내주지 않음에 분노한 모친 조마리아 여사가 3.1운동 이후 두 아들인 청근·공근과 함께 러시아로 이주,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1927년 7월 15일 사망 당시 상하이 동포 사회장 거행



為國獻身軍人本分

庚戌三月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贈書



國家安危勞心焦思

庚戌三月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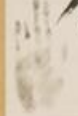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庚戌三月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見利思義見危授命

庚戌三月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 안응칠역사(안중근자서전)

一十八年七十九年號七月十六日大韓國黃海道  
海州府首陽山下生一男子姓安名重祿字德七  
（即）生大官三子方一在曰泰鎮二泰鎮三泰熙  
其中心父才慧英俊八九歲過連四書五經十五四  
歲科文大體字畫謹製通鑑世時魁甲國恩賜一  
字曰自以此字十張上下應實何大字說知否暗感  
答曰能知彼中文字是數見則果為英吉大字故研  
奇異云更問以此冊翻逐理上能知否若曰能知如

此誠同十餘次，快達一般，神無偶誤，用者無不稱  
是謂上例量，自此名譽，播著遠近，中華、堂銓、進士、舉  
薦、我、作、就、生、不、男、一、女、一、四、重、根、(一)二、堂、根、三、老、根、  
一、一、八、百、七、十、四、年、(二)開、往、留、於、京、城、矣、時、朴、論  
為、可、理、德、國、參、政、元、元、說、說、事、新、政、有、因、明、國、而、進、生、  
其、後、有、年、七、十、人、得、欲、決、意、回、國、進、學、(三)亦、為、報、  
還、意、也、時、政府、好、重、學、延、証、朴、以、欲、為、英、德、英、長、傳、  
現、時、朴、自、進、志、於、回、本、國、志、者、海、學、生、身、或、被、殺、戮、  
或、被、延、達、論、(四)亦、(五)其、進、學、情、隱、於、胸、不、其、其、又、相、  
請、只、回、事、得、日、非、其、富、貴、切、而、不、足、回、也、一、日、即、不、  
如、半、得、據、此、明、矣、初、月、以、其、珍、也、盡、費、家、產、整、理、歟、  
以、準、備、事、務、統、事、不、廢、凡、七、八、十、人、口、請、於、平、津、川、



## 최후의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르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에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자 유한이 없겠노라.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안중근의 자서전- 안응칠역사(사형 언도 직후~3월15일 탈고)
- 동양평화론-3월 18일 서문 집필, 사형연기요청
- 1) 동양평화론의 배경
- (1) 동양의 개념과 범위
  - 근대 일본이 창출한 '동양' 개념
  - 한중일 3국+인도, 태국, 베트남 등
- (2) 인종주의와 일본
  - 서양 제국주의세력에 대항
  - 아시아연대론, 황인종주의, 일본맹주론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2) 동양평화론의 내용

### (1) 정치/군사

- 한중일 동아시아 3국 평화 공동체 구상
- 뤼순 항구를 3국 공동 군항으로, 동양평화회의체 개설 구상

### (2) 경제

- 3국 공통은행과 화폐 발행

### (3) 문화

- 3국 청년 공통 군단, 2개 국어 습득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동양평화회의- 금융기관과 무장력을 갖춘 집행부
  - 실현방안- 일본이 뤼순旅順을 청에 돌려준 뒤, 영세 중립지로 개방. 일, 청, 한 3국이 대표 파견, 상설위원회 설치, 관리(동양평화회의체)
  - 뤼순에 3국 공동 은행 설립, 공용 화폐 발행
  - 서양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동양을 지키기 위해 3국 청년으로 평화군 편성 제안
- <= 실질적 집행력을 지역공동체 구상으로 21세기 유럽연합 or 한중일+동남아 아세안 구상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동북아 3국 평화회의 구성의 효과-일본은 수출 증대로 재정 안정 효과, 한국과 청국도 일본의 지도하에 상공업 발전(경제공동체).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도 가맹하고 한중일 3국 외에 삼, 미얀마까지 아시아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공동체 구상 가능 주장
- 1909년 11월 24일 안중근 신문조서
  - "동양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아세아주를 말한다"
  - "아세아주에는 중국, 일본, 한국, 삼, 미얀마가 있으며, 동양평화란 모두가 자주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이다"라고 답변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1)

-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내몰아 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날마다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데, 밝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
-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예부터 동양 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서 지켰을 뿐, 유럽 여러 나라의 땅은 한 치도 침입해 빼앗지 않았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도끼를 들고 서로 싸우며 나라를 빼앗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심하다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2)

- 그 난폭한 행동과 잔인함이 유럽이나 동양을 가릴 것 없이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에 하늘이 나서서 동해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 일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강대국인 러시아를 만주 대륙에서 한주먹으로 때려눕히기는 했으니, 이것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던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땅의 도움이고 사람의 생각에도 맞는 이치이다.
- 당시에 만일 한국과 청나라 양국의 국민이 모두 굳게 뭉쳐서 지난날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을 반대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이 어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국과 청나라 양국의 국민은 일본에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 군대를 환영하여, 길을 닦고 짐을 나르며 정보를 알아 내는 등 힘껏 일본을 도와주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3)

-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일본 천황은 이 전쟁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의 독립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을 도왔던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 또 다른 이유는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이 황인종과 백인종의 다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난날 원수진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같은 인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4)

- 슬프다. 천만 뜻밖에도 일본이 승리한 뒤에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힘으로 억눌러 강제로 조약을 맺고, 만주의 창춘[長春]을 남의 땅을 빌린다는 핑계로 차지해 버리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불현듯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위대한 명성과 공로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야만스러운 행동을 일삼던 러시아보다 더 나쁜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슬프다. 용과 범이 위엄 있는 기세로 어찌 뱀이나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인가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5)

-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당연한 일로 굳게 믿었고,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늘도 없애기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한두 사람의 꾀로 어찌 능히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침략의 손길을 뻗쳐 오고 있는데, 이 재앙을 동양인이 일치단결해서 막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일본은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형세를 무시하고, 같은 인종인 이웃 나라를 꺾고 친구의 정을 끊어, 서양 세력이 애쓰지 않고 이득을 얻도록 한단 말인가. 이로써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의 소망이 크게 꺾이고 말았다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6)

- 만일 일본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날로 억누른다면, 차라리 다른 인종에게 망할지언정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한국과 청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서 용솟음쳐서... 그렇게 되면 몇 억이나 되는 동양의 황인종 가운데 뜻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어찌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다가 동양 전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겠는가.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 그래서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는 여순(뤼순)으로 정했다. 이어 동양 평화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니 여러분은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

